

민노당과 장추련 간담회 내용

- 일시: 2005년 5월 17일 화요일 오전11시~12시
- 장소: 민노당 5층 회의실
- 참석자
 - 민노당측: 민주노동당 제3정책조정위원회 정책실장 이재영, 노희찬 의원 보좌관 정영훈, 민노당 정책연구위원 좌혜경
 - 장추련측: 김광이 법제위부위원장, 김병태 집행위원, 이인영 법제위원, 박성희간사
- 간담회 안건
 - 장추련이 제시한 6개 원칙에 대한 민노당 정책위 검토의견 전달
 - 6개 원칙에 대한 논의
 -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논의
 - 기타 법안 및 입법과정에 대한 논의
- 간담회 결과 및 과제
 - 6개 원칙에 대한 상호간의 입장을 확인할 것(수정여부, 수정범위 등)
 - 법제실 사전 스크린 및 의안과 비공식 의견 조화에 대한 장추련의 입장 전달(18일 상집위 논의이후 통보하기로 함)
 - 차회 모임 24일 오후6시

1. 민노당 정책위의 장차법안에 대한 의견

- 민노당 정책위 의견(정책위 검토내용이며, 당론은 아님, *상세내용은 민노당 회의자료 참조)

1)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에 대한 의견-가부를 이야기 하지 않음.

다만 ① 현재 독립기구안과 ② 일원화를 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실효성을 담보한 형태로 가도록 주장하는 안 두 가지가 고려될 수 있다고 함

- 사유: 차별시정기구의 일원화에 대해 민노당은 일단 검토를 하고 동의할 한 상태이며, 현재로서는 인권위에 더 많은 강제성을 줄 경우 인권위 존재의 위상마저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판단임

2) 징벌적 손해배상의 문제: 징벌적 손해배상이 갖는 진보적 의미와 반대로 도입 선례가 없고, 우리나라 법체계와 다른 문제 등을 언급하며, 찬반양론 의견을 각각 개진

3) 장애인 차별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: 찬성함

4)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: 찬성함. 오히려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더 강한 이행강제금 부과 입장

5) 단체소송제도 도입: 단체소송의 의미와 방법을 명확히 하는 작업 필요. 특히 당사자의 적격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 필요→ 검토요망

6) 법무부를 주무부처로 해야 된다는 의견: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나 독립적 기구를 }
규정한 법안과 상충됨. 생각됨.

2. 6개 원칙에 대한 논의

○ 민노당은 사전사후를 전제로 한 발의를 염두한 것이지 6개 원칙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원칙을 전한 것은 아니라고 함(제3정조위 정책실장)

: 대표발의수락할 당시에는 지도부가 법안을 보기전이었다고 함. 즉 법안을 보기전 대의에 합의하여 수락한 것이며, 법안 검토이후에는 난색을 표명했다고 함.

○ 특히 독립적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와의 문제가 있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함(정책연구위원 및 노회찬실)

○ 그 외 입증책임전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, 차별간주행위를 함께 규정함으로서 법리적인 부분이 맞지 않다는 지적(노회찬실)

○ 그러므로 장추련은 6개 원칙수정가능성에 대해, 민노당은 6개 원칙 수용 여부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정리하여 다시 만나는 것으로 정리됨(제3정조위 정책실장)

3. 향후 일정에 대한 논의

○ 전 생활 영역에 관계된 것이어서 의안과에 법안접수자체가 안될 수 있음 (노회찬실)

: 의안과에 비공식적 자문을 구하는 방안을 제안함(노회찬실)

○ 법제실에 사전 의견을 청취하기를 바람(15~20일 기간 정도 소요되므로 서두르는 것 고려)

: 법제실에 의견을 청취할 것을 제안하였으며(노회찬실), 이에 대해 상집
위원회의에서 논의한 이후 의견청취여부를 전달하기로 함(부위원장)

- 6월 임시국회를 예상하고 있으나 너무 촉박한 일정이며, 융통성을 가질
것을 제안함(노회찬실)
- 다음주 중 6개원칙에 대한 상호간의 의견을 조율되면, 이후 법조인3. 의
원실 1인, 장추련 1인 등의 법안수정팀을 구성하여 수정하며, 발의하도
록 하는 일정안을 밝힘(제3정조위)

4. 기타 법안에 대한 논의

- 법안에 대한 문제지적
 - 개념 및 목적의 불명확화, 권리라고 하지만 시혜적인 내용이 혼재되어있
음. 절차법(입증책임)과 실정법(간주행위) 등이 동시에 거론되어있음
- 법안 발의시 예산 등을 첨부하게 되어있는데 광범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
의 경우 상당한 애로점이 따름